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혼에 무지개가 없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마지막 주일이며, 다음 주일 ‘은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올 한 해의 전례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징표를 일러 두시고 온갖 시련 속에서도 진리의 그리스도께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당부하십니다.

쉽게 끝나리라는 일반적인 판단을 넘어 더욱 확장되어 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블랙홀처럼 세계의 모든 자원들을 삼키면서 고물가와 고금리의 악순환을 야기시켜 전 세계의 경제를 피폐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전대미문의 감염병 확산은 이미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불안의 시대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기후 이변으로 인한 잦은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는 빈곤을 가속화 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죽어가고 굶어가는 재난의 현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약한 이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종말적인 이 모든 상황에 대처하고 피신할 수단이나 여력이 더 없기 때문입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은 속수무책으로 그저 두 손만 모으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11월 ‘자비의 회년’을 폐막하며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지내도록 선포하시고 이날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의 모범을 보여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대, 형제애를 실천하도록 일깨우고 촉구합니다.

오래전 이라크 전쟁을 취재하던 중군기자가 포격으로 온몸에 부상을 입고 붕대에 감긴 채 병상에 누워 있는 어린이의 사진을 보내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혼에 무지개가 없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선한 마음은 눈물이 되고 영혼의 무지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조정제 오디론 신부 | 진동본당 주임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말라 3,19-20
- 화 답 송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 제 2 독 서 2테살 3,7-12
- 복 음 루카 21,5-19

내가 죽고 나면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박재찬 안셀모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2018년 11월 프란치스코 성인의 성지인 이탈리아 아씨시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수많은 순례자들의 행렬을 보고 깜짝 놀랐으며, 수백 년이 지났지만 성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제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죽고 수백 년, 아니 수십 년 후,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를 기억할까?' 함께했던 수도 형제들 마저 죽고 나면 역사의 무수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잊혀지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허무하고 보잘것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도 그러하실까요? 성인이 되고 교황이나 주교가 되어야 사람들과 하느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까요? 하느님께서 성인들을 특별히 불러 주시고 기적의 은총을 주시지만,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그저 외면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를 잊고 계실까요? 우리 인생은 아침 이슬처럼 한 낮의 태양빛 아래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그때 문득 예전에 생태학(Ecology)을 배울 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대우주(Macro-cosmos)와 소우주(Micro-cosmos)의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하느님의 대우주는 우리 각자의 소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소우주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음 후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서 당신 영을 통해 직접 돌보고 계십니다. 각 사람의 소우주를 돌보는 하느님께서서는 대우주를 관장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모든 다른 사람의 소우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소우주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성인은 더 많게, 우리는 더 적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몫으로 충만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의 작은 소우주 안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당신의 대우주와 연결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10달란트와 1달란트가 우리 눈에는 차이로 보이지만, 하느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이 됨은 하느님의 대우주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 뿐, 우리 모두는 우리 인간의 방식이나 인간의 생각을 넘어 하느님의 방식으로 대우주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소중히 기억하고 사랑해 주시며 우리 모두가 당신의 대우주를 우리 각자의 소우주 안에 전하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 부르심에 우리 각자가 자신의 여건 안에서 사랑으로 기꺼이 응답할 때 우리 역시 성인들처럼 하느님의 대우주를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성인이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나의 소우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선택할 때 나의 삶 안에서 크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보시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몫을 다 한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각자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이 크든 작든 서로 다를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우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교회요, 그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곳이고, 그곳이 하느님에게는 모두 소중하고 고귀한 나와 주님만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소우주요 그 활동 범위가 넓든 좁든 하느님께서는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침에 온 일꾼이나 오후 늦게 온 일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마태 20,1-16). 가진 것 중 일부를 봉헌하며 생색내는 부자보다 그 금액은 적지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그 과부의 작은 헌금이 더 크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루카 21,1-4).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긴 이들만이 가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서는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대해 후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잔소리하는 아내, 무심한 남편, 저 멀리 가버린 듯한 자녀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똑같은 삶인 듯하지만,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상이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하고 귀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에 마음 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영적인 눈을 뜨고 깨어나는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위령의 날 교구 합동 위령미사



교구 위령의 날 합동 위령미사가 11월 2일 고성 이화공원묘원에서 신은근 바오로 신부(교구장 서리)의 주례와 교구 사제단의 공동 집전으로 봉헌되었다. 이날 1,700여 명의 신자가 참석하여 세상을 떠난 교구 사제들과 신자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였다.

대방동본당 본당의 날 행사



대방동본당(주임: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본당의 날 행사가 10월 23일 거제 운봉문 요셉 성지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4년 만에 이루어진 성지순례로 본당 신자 224명이 참석하였다. 본당 신자들은 성지에 도착하여 야외 요셉홀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오후에는 가위바위보 게임, 병뚜껑 튕기기, 제기차기, 단체줄넘기 등 모든 신자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방동본당은 본당 사제, 수도자를 비롯하여 본당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웃고 박수를 보내는 뜻깊은 본당의 날이었다.

청년 신앙강좌 피정 및 수료미사

청년 신앙강좌 피정 및 수료미사가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있었다. 수료미사 중에는 신은근 바오로 신부(교구장 서리)의 특강과 10명의 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수여식이 있었다. 신은근 신부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강좌를 수료한 청년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하였다. 청년 신앙강좌는 3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2023년 강좌는 성경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4기 어머니학교 개최



14기 어머니학교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있었다. 어머니학교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진행되었으며, 김현우 가브리엘 신부(사목국 부국장)를 비롯하여 봉사자 및 참가자 20명이 함께하였다. 어머니학교에 함께한 참가자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예수성심의 사랑 속에 견고 뛰었던 60년 사천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본당설립 60주년 행사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은 사천성당은 여전히 잔칫집 분위기다. 건물 외벽에 걸린 현수막이 그렇고, 성전에 빼곡 찬 신자들에게서도 생동감이 풍긴다. 교중미사의 공지사항 때에 전주홍 요셉 주임 신부는 5백 명분 잔치음식을 성심껏 만든 자매들에게, 시설 등을 치다꺼리한 형제들에게 노고를 치하한다. 또 성전 전등을 보완하고 조도를 높여, 미사전례 때 신자들이 한층 밝음을 누리게 된 환경을 섬세하게 설명한다.

온 신자들이 힘 모은 60년 잔치

미사 후에도 모임을 챙기며 분주한 김 마리 폴 수녀는 “사천성당은 참 따뜻하고, 젊은 분이 많아 활기차다”고 미소를 던지고는 신자들 속으로 사라진다. 추진위원장을 맡아 60주년 기념사업을 관장한 조복래 마리오와 부회장 김증선 마리나를 마주했다. 전날 미리내와 죽산으로 여성협의회 성지순례를 다녀왔다는 부회장은 피곤함이 역력히 묻은 얼굴임에도 뿌듯함이 훨씬 크다는 속내를 말한다. 행사 당일 손쉬운 뷔페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우리가 하자’는 자매들의 의기투합으로 잔치음식을 거뜬히 해냈다는 것이다. 큰일을 끝낸 자매들과 함께 성지순례로 마무리를 짓고 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잔치음식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신자들이 힘과 재료를 보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쌀이나 채소를 가져오고, 형편이 닿는 대로 무엇이든 가져다 날랐다. 자매들은 맛깔스런 음식을 만들고, 형제들은 설거지를 도맡았다.

사천성당 신자들은 소수의 힘이 아니라 모두의 협력으로 60주년을 이루자는 목적으로 교무금 한 달 치 정도를 봉헌하여 온 신자의 잔치가 되기를 바랐다. 성당 내·외부를 단장하고, 성전에는 사진전시회를 꾸렸다. 연말에 발간할 <60년사>를 대비하며, 우선 사천성당의 어제와 오늘이 담긴 소책자도 발간하여 배부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는 동안 코로나19로 허물어진 공동체의 울타리가 복구되고 더욱 결속되었다.

모든 것이 은총이었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사천성당은 올해 이 기치를 내 걸고, 주님의 은총을 곱씹는 시간을 가졌다. 1962년 6월 ‘예수성심’을 본당주보로 본당이 설립되어, 60년이 흐르는 동안 거쳐 간 사제들과 그분들이 이곳에 안겨준 영향력을 짚어보며 그리움에도 잠겼다. 그 시기 그 상황에 따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손길을 뻗고, 신자들의 본분을 다하도록 실천사항을 제시하며 틀을 갖추게 한 노고를 잊을 수가 없다. 1997년에 이룬 새 성전 건립이나 2007년 서포공소에 새 성전을



사진전

마련한 때에도 돌이켜보면, 무지하게 흘린 땀도 뜨거운 발품도 은총의 시간이었다.

조복래 마리오 추진위원장은 이 은총의 시간들을 차곡 차곡 정리하여 알차고 제대로 된 <60년사>를 발간하려 준비하고 있다. 사천성당은 <30년사>를 발간한 후 50주년에 책을 발간하려다가 준비가 좀 부족하여 미루었다. 이번에는 <30년사>에서 발견한 오류도 바르게 잡고 그 후의 역사 기록도 세심하게 살폈다. 조급하게 하지 않으려고 오랜 시간을 두고 본당일지나 주보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역사를 아는 어른들을 찾아 녹취도 하고 기록하며 빈틈없이 챙기고 있다. 은총 속에서 산 신자들의 글도 많이 받았고, 60주년 행사까지 모두 포함하여 <60년사>에 담기 위하여 서둘러 만들지 않고 연말에 발간하려 한다.

사천성당에는 1965년 축동에 조성한 성당묘지가 있다. 여기 신자들은 세상을 떠나면 거의 모두 그곳으로 간다. 얼마 전에 선종한 조영일 루카 초대회장 장례는 온 신자들의 애도 속에 레지오장으로 경건하게 치러졌다. 존경받는 원로인 그는 국가유공자임에도 현충원으로 가는 것을 마다하고 성당묘지를 원하여 거기에 묻혔다. 그만큼 성당묘지는 신자들의 자랑이다. 특히 위령 성월을 맞으면 묘지를 손질하며 신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후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남녀노소나 신규 신자들과 조화

사천지역의 특색은 직장으로 인해 유입되는 인구가 많고 또 떠나는 사람도 많다. 성당도 마찬가지이다. 직장을 따라 이동해 온 젊은 가족이 많아 고무적인 반면에 몇 년 사이에 신자들의 얼굴이 바뀌어버리는 아쉬움이 허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따라왔다가 여기서 세례 받고 눌러앉았다는 김 마리나 부회장이자. 200명에 이르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 주일학교 교사, 청소년 분과장을 거쳐 지금은 부회장이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늘 흐뭇하다. 지금도 초중고등부를 합쳐 8,90명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오는데, 시대의 변화에 맞춰주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조 마리오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진주에서 옮겨온 지 30년인데, 살면서 정드니 떠나고 싶지 않은 사천이고 사천성당이다. 꾸리아 단장, 사목회장을 거쳤고 설립 60년추진위원장을 맡아 본당의 역사를 파고 들수록 주인정신이 가득 찼다. 공소시절로 거슬러 올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성장한 한 줄의 역사라도 허투루 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돌아보고 살펴본다. 옮겨올에는 사천성당 신자들의 가슴에 다 자부심을 담은 책을 안기고 싶은 것이다.



교구장 서리 동정

사제 총회

일시: 11월 15일(화) 10: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성경찬치 파견미사
 일시: 11월 20일(주일) 15:00
 장소: 교구청

교구/본당

사제 총회

일시: 11월 15일(화) 10: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

일시: 11월 17일(목) 11:00/ 장소: 옥봉동성당

제11회 교구 성경찬치

일시: 11월 20일(주일) 09:3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2022년 마리아 사제운동 전국 체나콜로 대피정

일시: 11월 19일(월) 09:30~17:00
 (마산, 창원 07:00 출발)
 장소: 대구대교구 주교좌 범어대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11월 체나콜로 다리방 모임은 전국 대피정으로 대체합니다.

기타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수강생 모집

내용: 홈토키!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 영어
 문의: 053·593·1273

2023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11월 14일(월)~23년 2월 10일(금)
 내용: 가톨릭신학 전반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문의: 02·745·8339/ 우편접수가능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안내

전입학설명회: 12월 3일(토) 14:00
 겨울진학캠프: 23년 1월 14일(토)~15일(주일)
 대상: 현 초6, 중1 / 문의: 054·338·0530

분더칼리지 캐나다 겨울영어캠프

기간: 12월~23년 2월 말
 (주 단위 등록 및 연장 가능)
 내용: 밴쿠버 명문사립 스쿨링/ 진로유학 멘토링
 대상: 초4~고2
 문의: 1577·5158/ 카톡: 분더에듀

암 환우를 위한 치유 기도회(청도 성모솔숲마을)

일시: 매달 3째주 토요일(11:00 미사)
 내용: 미사, 점심, 특강/ 신청: 예약 접수
 문의: 청도 성모솔숲마을 010·3209·3955

젊은이 대립피정(1박 2일)

일시: 11월 26일(토) 14:00~ 27일(주일) 14:00까지
 장소: 프란치스코전교부사수녀회 원주 본원
 대상: 만 39세 이하 가톨릭 미혼여성 누구나
 주제: "Do You Have Room?"-당신을 위한 마음공간
 문의: 강피아 수녀 010·3679·7198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대립피정'

일시: 11월 26일(토)~27일(주일) 1박 2일
 대상: 40세 미만 미혼여성
 주제: "빛이신 주님을 기다리며"(요한 1,4-5)
 문의: 010·3241·3107

2023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일시: 23년 1월 6일(금)~8일(주일)
 장소: 살레시오회관구관(서울)/ 참가비: 3만 원
 대상: 고3(예정자)~30대 미혼남성
 문의: 010·2042·8353(심재현 신부)

가음동본당 제29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이훈(모이세)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서정국(프란치스코)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김민주(엘리사벳)
 총무: 장양섭(나자리오)
 재경분과위원장: 김혜성(마르티노)
 홍보분과위원장: 최병창(스테파노)
 구역분과위원장: 김희순(데레사)
 전례분과위원장: 이영미(카타리나)
 복음화분과위원장: 이해정(요안나)
 가정노인분과위원장: 진명진(비오)
 청소년분과위원장: 문정희(나탈리아)
 신앙재교육분과위원장: 배충환(블라시오)
 사회복지분과위원장: 백경숙(엘리사벳)
 시설분과위원장: 이소연(크레산도)
 성전재건축분과위원장: 차경준(바오로)

송구영신 피정

일시: 12월 31일(토) 16:00~23년 1월 1일(주일) 10:00
 장소 및 주관: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피정 및 송년미사, 송년파티, 해맞이행사, 신년 대축일미사
 신청: 60객실(1~3인실) 선착순 마감
 계좌-농협 351-0006-1186-53 (재)마산교구
 ▶백신 3차 접종 완료자에 한함
 준비물: 세면도구(수건포함), 개인컵, 미사준비
 문의: 055·221·1891, 010·7542·9631

교구 2023학년도 유치원 신입 원아 모집

교구 내 유치원 신입 원아모집에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미유치원(고현성당) 거제시 거제 중앙로 19길 18
 문의: 055·636·4288
 ●성모유치원(명서동성당)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77
 문의: 055·265·0791
 ●성모유치원(옥봉동성당) 진주시 향교로 42번길 5
 문의: 055·741·4855
 ●성심유치원(중앙동성당)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64
 문의: 055·547·7187
 ●소화유치원(문산성당) 진주시 문산읍 67번길 9-4
 문의: 055·761·8755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11월 14일(월) 19:00	중앙동성당	하느님을 만나는 산	김명선 사도요한 신부(부산교구)		010·5072·5612
청년	매주 (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1월 19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신타이코 순례 (지진기/도보) 상설 병행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인질투어
 12월 12일 ~ 16일
베트남 성모발현지 (다낭) 3박 5일 125만원
 베트남 성지순례 맞춤 모객 및 신심단체별 단체행사
 대표 손영민 디터이
 010-4999-3797
 직접 안내*기도*교육*수배 합니다.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지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국내·해외성지순례 모집
 2023년 1월 이스라엘 9일 성지순례
 ■제주도·한국성지 167 성지순례 모집
 주중·주말 매주 출발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성악/기초발성 전문
 성가, 가곡, 입시, 그룹레슨 운영
 상남동 소재
 김민형 요셉 010-5110-3039

의인의 기도

허태범 요셉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대표팀을 위해 기도하자는 말을 들은 비신자의 “그럼 다른 나라도 기도하면 결국 누가 이기냐?”는 비아냥에 “어쨌든 축구 잘하는 나라들은 다 그리스도교 국가”라고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이기게 해 달라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교회 공동체는 참 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한다. ‘인류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소외된 이들을 위해...’ 등 세상을 위한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기도의 힘이 있는지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았다. 기도의 효과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세상을 위한 기도는 무의미해 보였다.

얼마 전 아내의 주도로 아이들과 함께 성경쓰기를 한 적이 있다. 아이들만 시키기가 좀 눈치 보여 같이 성경쓰기를 하던 중 아모스가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다가올 파국에 대한 환시를 보고 하느님께 부르짖음으로써 하느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에서 작은 울림을 느꼈다.

‘세상은 의인들의 숨겨진 기도를 통해 지탱되고 있었구나.’

수많은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기도, 평신도들의 기도, 알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많은 이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간구하고 그 간구함이 세상을 구하고 있는데 단지 눈앞에 결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기도의 힘이 어디 있다고 투덜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느꼈던 기도의 무의미함은 기도의 힘에 회의적이었던 것보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표나지 않는다’는 억울함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요나서에서 요나의 반항은 지극히 인간적이다. 싫어하는 이민족들이, 하느님께서 재앙을 준비하셨지만 의인들의 회개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것을 몰라줄 텐데, 그들 구원에 도움을 줘 본들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을 텐데 그게 억울했던 건 아닌가.

세상을 위한 숨은 기도는 오로지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을 향한 신뢰와 세상을 향한 사랑에 기인한다. 그러나 나는 세상과 하느님을 향한 사랑보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에 가득 차 있어 썩지 않는 하늘나라의 보물보다 지금 내 자리에서 받을 이익이나 명예에 더 마음을 쓰고 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하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보겠다고, 의인의 반열에 서 보겠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내 발은 위선자들과 함께 세속에 담고 있으니... 참, 어렵다.

캄보디아에서 온 소식

다시 문을 연 ‘평화의 어머니 기숙사’

우리 교구의 지원으로 캄보디아 보이벳에서 여학생을 위한 ‘평화의 어머니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예수성심선교회 수녀님들이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올해 들어 캄보디아의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여학생 기숙사도 1월부터 신학기 과정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25명이 함께 생활을 시작했으나 몇몇 아이들이 부모를 돕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기숙사를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수녀님들과 선생님들은 오늘도 기도와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불어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녀님들은 우리 교구의 후원이 없었더라면 지금껏 여학생들의 교육을 지속해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가난한 보이벳의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우리 교구와 교구민들께 크나큰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미래를 향한 보이벳 어린이들의 꿈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교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여호수아기 13-19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 광주가톨릭대학교

한정된 재화를 모든 사람이 만족하도록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였을까요? 열두 지파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할 텐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아주 척박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은 기껏해야 이즈르엘 평원과 세펠라 지역 정도이고, 나머지는 메마른 돌투성이 땅입니다. 중앙고원지대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건기의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빗물을 가두어 저장할 수 있는 물웅덩이들을 파야 했습니다. 곧, 그들이 나누어 가지게 될 땅은 전부 다 비옥하지도 않았고, 어떤 땅은 다른 곳보다 더 척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땅을 분배하시겠습니까? 전쟁에서 더 많은 전사자를 낸 지파에게 더 좋은 땅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적군들을 죽인 지파에게 더 좋은 땅을 주어야 할까요? 수도 적고 공훈을 세운 것도 없는 지파에게는 가장 척박한 땅을 주어야 할까요?



여호 14,2-4은 그들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르우벤과 가드 지파, 그리고 므나세 반쪽 지파는 모세가 살아있던 시절에 이미 요르단 건너편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서편의 땅은 아홉 지파와 므나세의 다른 반쪽 지파가 상속받게 되었는데,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땅을 분배하는 일에 어떤 인간적인 명분도 개입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대로 땅을 할당받았습니다. 여호수아기 1-12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느님의 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거듭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상속재산입니다. 이 땅의 소유권은 하느님께 있기에 이 땅을 나누어주시실 권한도 하느님께 속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 받았고, 아무도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땅의 분배에 관한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지파들이 나누어 받은 땅은 크기도 제각각이고, 비옥함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땅의 크기가 지파의 인원수에 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처사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기 15-19장은 각 지파들이 분배 받은 땅을 열거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지명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지명들이 왕정 제도가 이미 정착된 후의 유다 지역의 형세를 반영한다고 주장하거나 요시아 임금 때의 영토를 반영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기 21장의 레위인들의 성읍 목록에 등장하는 성읍들은 대부분 기원전 8세기 경의 도시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무렵에 기록된 책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여호수아기 20장은 모세가 민수 35,9-29과 신명 19,1-10에서 명령한 대로 요르단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의 도피 성읍을 설치하였다는 것에 보도합니다. 도피 성읍이란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 피의 보복자를 피하여 도피할 수 있는 성읍입니다. 그가 비고의적 살인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는 공동체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때의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도피 성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는 살인자가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보복자의 손에 죽는 일이 없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대신에 각 지파들이 내어준 48개의 성읍과 목초지에서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나세와 에프라임이 두 지파가 되어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제비뽑기를 통해 땅을 상속받았듯이 우리 각자도 하느님으로부터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